





복싱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?

아웃복서: 상대와 거리를 벌리고 조절, 수비적이고 <mark>안정적인 스타일 인파이터</mark>: 상대에게 파고들어, 근접전을 통해 한방을 노리는 <mark>공격적인 스타일</mark>

복싱은 체중에 따라 체급을 나누어 대전을 하게 되는데요,KPBF 기준, 체급은 총 16개로 나뉘며, 각 라운드당 3분 동안, 총 12라운 드에 걸쳐 싸우는 스포츠입니다!!!

48kg미만: 라이트 플라이급

48kg~51kg: 플라이급

·51kg~54kg: 밴텀급

·54kg~57kg: 페더급

57kg~60kg: 라이트급

60kg~63.5kg: 라이트웰터급

63.5kg~67kg: 웰터급

67kg~71kg: 라이트미들급

71kg~75kg:미들급

75kg~81kg:라이트헤비급

81kg~91kg: 헤비급

81kg~ 91kg: 헤비급

91kg 이상: 슈퍼헤비급



들어 보셨나요?? 복싱 최고의 이벤트 매치들!





- 총 대전료가 2000억 원!
 - 복싱과 MMA의 자존심 대결!
- E을 위한 이벤트성 매치??

위 두 경기 모두 메이웨더가 우승하여 대략 4000억 원의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!!

복싱스타 메이웨더를 아시나요??



그 밖에도 '숄더롤'이라는 메이웨더 자신만의 방어기술을 사용하고 사치스러운 사생활로 유명한 선수입니다.

메이웨더만큼 대단한 선수가 또 있다고?????? 필리핀출신이자 아시아의 자랑, 매니 파퀴아오

복싱 역사상 최초의 8체급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. 파퀴아오는 복싱계 은퇴 후, 2010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<mark>정치인의 길</mark>을 걷고 있다.



하지만 복싱은 현재 암흑기??

UFC (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)때문?



- 복싱보다 경기시간이 매우 짧다.
-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고, 글러브 또한 매우 얇다.
- 주먹만이 아닌 발차기와 레슬링 또한 사용 가능하므로 다양성을 요구된다.
- 경기장이 8각형으로 되어 있어 원형경기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.



상대적으로 지루해 보이는 복싱보다 UFC를 선호 ⇒UFC관객들이 격투기 종목관객들 中 8할을 차지

복싱만의 매력이 있다고??

복싱은 잘 알려진 다이어트 운동 중 하나입니다. 그만큼 복싱은 상당한 기초체력을 요구하기 때 문에 운동량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UFC챔피언 코너 맥그리거는 복싱 챔피언 메이웨더와의 경기 중, 12라운드 중 5라운드도 채 넘기기 전 급격하게 움직임이 줄기 시작했고, 메이웨더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체력적 우위를 통해 빠른 움직임을 통하여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

> 복싱은 또한 매우 안전한 운동!!! UFC와 달리 헤드기어를 착용하고, 큰 글러 브를 착용하기 때문에 부상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복생 많이 사랑혜주세요!!